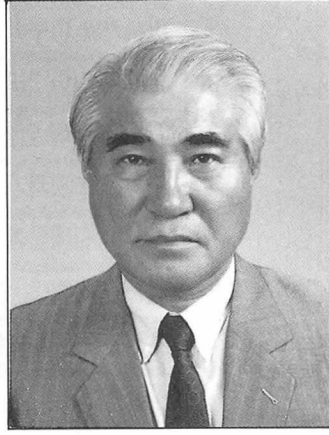


출판인들 가을 수상 소식 풍성

은관문화훈장·대한민국문화예술상·서울시 문화상 등



윗줄 왼쪽부터
고 김익달·한만년·권병일·
배효선·박신준씨.



문화의 달 10월을 맞아 출판인들의 수상 소식이 풍성하다.

배효선(59·법문사 대표)씨는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9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문화예술진흥유공자 옥관문화훈장을 받았다. 배사장은 지난 1960년에 입사, 1984년 사장에 취임하여 35년간 법문사를 일구어왔으며 사회과학·역사·철

학 분야의 전문 출판사로 성장시켜 왔다.

박신준(80·세광음악출판사 대표)씨는 제 28회 대한민국문화예술상을 수상했다. 매년 문화예술 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정부가 시상하는 이 상은 음악관련서 출판의 외길을 걸어온 박신준사장의 공적을 치사한 것이다. 지난 1953년 창립 이래 세광음악출판사는 음악관련서 출판에만 매

진했으며, 예술교과서와 《월간 예술피아노》를 발행하고 있다.

또한 권병일(64·지학사 대표)씨는 지난 1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제45회 서울시 문화상을 수상했다. 서울특별시가 수여하는 문화상은 10개 부문에 각 1명씩 시상된다.

한만년씨(71·일조각 대표)는 지난달 15일 서울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식에서 제6회 '자랑스런 서울대인' 상을 수상했다. 한만년 사장은 '53년 일조각을 설립한 이래 지금까지 1300여종의 책을 펴낸 한국 출판계의 거목. 한사장은 한국학 관련서적 간행에 주력, 《한국사신문》《한국사학의 방향》《조선한자음연구》《한국사강좌》《고어사전》 등 한국학 관련 도서 860여종을 발간해 한국학 개척과 정립에 크게 기여했다.

한편 우리나라 출판과 잡지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고 김익달씨(1916~1985, 학원사 설립자)에게도 은관문화훈장이 추서되어

11월 1일 잡지의 날에 시상됐다. 1952년 11월 1일에 창간한 《학원》을 비롯하여 《농원》《여원》을 창간했던 학원사는 1968년 국내 최초로 《대백과사전》을 출간, 출판역사 커다란 획을 그었고, 나라의 미래를 장학육영 사업에도 힘썼다.

간행물윤리상에 김문환 교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권혁승)는 제7회 간행물윤리상 시상식을 지난 10월 31일 가졌다. 3개 부문으로 나눈 이번 시상에서 임석재(94, 민속학자)옹이 평생에 걸친 민속동요 저술과 우리나라 구전문요 발굴, 국 보전에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은 공적으로 공로부문을 수상했다.

저작부문은 《미래를 사는 문화정책》《레오나르도를 되살린다》를 저술한 김문환 서울대 교수(53, 한국문화정책개발원장)와 《문예사조의 이해》《토지를 읽는다》를 저술한 최유찬 연세대 교수(46)가, 출판부문은 《조선총독부관보》등 한국학 관련 출판에 공헌한 이상재 아세아문화사 회장(73)이 각각 수상했다.

이에 앞서 위원회측은 “음란 폭력간행물과 청소년의 폭력문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10월21일 한국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음란폭력간행물이 청소년의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윤가현 전남대 교수), <음란폭력살상간행물이 청소년의 학원폭력에 미치는 영향>(김영

좋은 나무여야 좋은 책을 엮었듯이 ...

종이가 없었던 춘추전국 시대에는 나무조각(木簡)이나 대나무조각(竹簡)에 문자를 새기고 그들을 엮어서 책(冊)을 만들었습니다. 수레 가득히 목간을 싣고 여행을 떠났다는 당시의 사상가들에게 목간(木簡)을 만들 질 좋은 나무가 꼭 필요했듯이... 늘 종이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기업 — 우정지업이 여러분의 출판, 인쇄문화 창달에 큰 몫을 거들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종이공급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모조지 / 아트지 / 서적지 / 라이온 코트지 / 중질지
스노우 화이트지 등 일반용지 ●레자크, 레이드지 / 색지
밍크지 / 세미그로스지 / 엠보싱지 등 특수용지
※변규격/종이상담환영

(주)우정지업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89-22 서교진 BD 101호
Tel: 325-8162 Fax: 325-8163





간행물윤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음란폭력간행물과 청소년의 폭력문제"에 관한 세미나.

진 홍사단부설 청소년연구원 부원장) 등의 주제발표와 최근 음란폭력간행물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광범한 논의를 벌였다.

출판연구소 제6회 출판포럼 개최

한국출판연구소(이사장 김경희)는 지난 11월4일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한국출판유통(주)(대표이사 윤석금)과 공동으로 "21세기 출판유통 선진화 방향"을 주제로 한 제6회 출판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독자가 바라는 출판유통구조>(이중환) <한국 도서유통의 과거 현재 미래>(허창성) <우리나라 출판유통의 개

선방향>(김종수) 등의 주제발표와 출판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운영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토론에는 손재완 김병준 임건석 노병성 한기호 등이 참석, 도매유통기구의 역할에 대한 관련업계의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저작권 전문가 심포지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동)는 "멀티미디어시대의 저작권 대책"이란 주제로 '96 저작권 전문가 심포지엄을 11월7일부터 이틀간 도쿄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갖는다.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법률적 환경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디지

털 환경과 집중관리제도>(이진우·변호사), <저작권보호를 위한 기술장치의 문제점>(임원성·문체부 저작권과 서기관), <저작물의 온라인 전송에 따른 법적 책임문제>(박인환·변호사) 등의 주제발표와 함께 토론의 자리도 마련했다. (592-8404)

대한민국 법령집 CD롬 타이틀 출시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의 CD롬 타이틀이 출시됐다. 우리나라 전체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 약 3200건의 법령과 17500건의 별표서식류를 한장의 CD롬에 담았다. 특히 한자 한글 전환기능으로 한자에 익숙지 않은 세대들에게도 검색하기 편리하도록 한 것이 특징.

법제연구원의 44개 분류체계로 나누고 가나다순으로 배열, 분야별 검색과 가나다식 검색도 가능하다. 씨엔아이에서 개발하고 한국법령정보센터에서 판매를 맡고 있다. (564-3732)

'시가 있는 그림전'

'시의 날'(11월1일)을 맞아 서림화랑이 주최하고 예술의 전당이 후원하는 제10회 '시가 있는 그림전'이 지난 10월26일부터 11월3일까지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는 36인의 화가가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부터 서정운의 <홀로서기>에 이르기까지 총46편의 시를 그림으로 형상화했다.

김대중총재 '저자와의 대화' 참석

교보문고(대표 유건)가 주최하는 '저자와의 대화'에 지난 10월26일 <총재님 그것이 알고 싶어요>(무당미디어)의 저자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가 참석, 홍사단 강당에서 2백여 독자들과 토론의 자리를 함께 했다.

한편 김총재는 이날 교보빌딩 비즈니스클럽에서 나춘호 출협회장, 박기봉 출판협동조합 이사장, 이강산 영등포문고 사장 등 출판서적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활성화, 도서정가제 유지, 파주출판단지 지원, 출판문고 기금 확충지원 등 국민회의의 6가지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영풍문고 부천점 개설

영풍문고(대표 방용남)는 지난 10월12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로얄백화점 신관 2,3층에 총5백평 규모의 부천점을 개설했다. 95년 문을 연 평촌점에 이어 두번째 지점으로 문을 연 부천점은 이날 개점행사로 <뜨거운 가슴에 좌절이란 없다>의 저자 엄영란 씨 팬 사인회를 가졌다. (032-664-0314)

고침

<출판저널> 제201호 31쪽 '새책 흐름' 기사 중 <전태일>의 출간사는 '창작과 비평사'가 아닌 '사계절'이므로 바로잡습니다.

좋은 출판 소재나 출판 원고를 찾습니다.
출판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대행합니다.

바른 과정, 좋은 책 -

우정 미디어의 출판 대행 서비스

지은이의 출간의도를 정확하게 청취.
원고 검토 후 출간 및 마케팅 종합계획을 수립.
저자와 함께 합리적 디자인 방향을 결정.
PR방향 검토와 보도자료 제작.
광고 계획서의 작성과 광고집행.
서점 진열과 판매 동향에 따른 판촉활동.
재판 발행을 위한 보완 및 수정.

(주)우정미디어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89-22 서교진 BD 101호
Tel. 324-9762 Fax. 338-0192

WOOJUNG
media